



돈은 하나님의 관심사다

1. 돈은 왜 하나님의 관심사인가?

Opening Talk

오프닝 토크



전도서 10:18-11:6을 읽으라.

18. 게으른즉 서까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19.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20.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 11:1.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나니라
 3.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4.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5.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밴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6.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나니라

(Tip. 모든 질문은 한꺼번에 읽고, 각자 원하는 질문에만 답하게 해주세요.
질문은 토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주세요.
Biblical Point 나눔도 동일하게 진행해주세요.)

- 위의 말씀은 성경적 투자 원리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다. 자신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구절이 있다면 나누어 보자.

-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자. 그때의 경험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안겨주었는가? 돈에 대해 평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Biblical Point



바이블 포인트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돈은 세상적인 것이고 나쁜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죽한 줄로 알라”(히 13:5)는 말씀조차도 돈에 대한 욕심을 지적한 것이지 돈 자체를 비난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창조하실 때부터 물질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서로 물건도 교환하고 자연스럽게 화폐 경제가 생겨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돈이나 물질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많이 나온다. 돈은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수단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선교사를 많이 보내려면 그만큼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도바울의 선교 여행도 물질 없이는 불가능했다. 빌립보 교인들은 여러 차례 물질로 사도바울을 도왔다(빌 4:15-16).

성경에서는 “돈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인류에게 복을 주는 데에 돈이 사용될 수 있는 길에 관하여” 많이 가르치고 있다: 삭개오가 자신이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을 갑절로 갚겠다고 하며,

물질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에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눅 19:9)고 기뻐하셨다. 예수님은 부유층 여인들의 많은 후원으로 사역이 진행되도록 허용하셨다(눅 8:1-3). 아리마대 요셉도 자신의 부로 무덤을 제공함으로써 예수님을 섬기는데 사용했다(마 27:57-61). 사도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함으로(빌 4:12) 진정한 성경적 물질관을 보여주었다.

돈의 긍정적인 면은 구약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부부에게 에덴이라는 풍성한 물질적 환경을 제공해주셨다. 아브라함에게도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도록’ 해 주셨다(창 13:2). 욥은 동방에서 큰 부자였다(욥 1:3). 하나님의 성막도 백성들이 가져온 많은 물질들로 지어졌다(출 35-40장).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 중에서도 중요하다: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신 28:11-12). 성경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사라고 가르친다. 그러기에 우리가 배불리 먹고 하나님이 옥토를 주셨을 때에 그분을 찬송하라고 가르친다(신 8:10).

구약의 지혜의 말씀서들에서도 돈의 건설적인 면을 많이 가르친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잠 11:16).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잠 22:4).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시 119:14). 성경은 재물이 하나님의 말씀만큼 즐거운 것이라고 말한다. 시편의 저자는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을 전혀 죄악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잠 10:15).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전 5:19).

이처럼 성경은 재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심지어는 투자의 원리도 가르쳐주고 있을 정도다.

성경적 투자 원리(전10:18-11:6)ⁱⁱ

오프닝 특에서 읽은 전도서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투자에 대해 조언을 담고 있다. 지혜 문학서에 속하는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투자 방식을 배워 보자.



첫째,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 “게으른즉 서까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나라”(전 10:18). 성경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가정 경제가 썩어 물이 새는 지붕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가르친다. 전도서뿐 아니라 지혜를 가르쳐주는 잠언도 게으른 것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한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잠 6:9),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잠 12:24) 등의 말씀을 한다. 일단 기독교인들은 게으른 자들의 대열에 속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경고는 게으른 자들이 빈궁에 처하게 되어 고통 받을 것을 우려하여 주는 것이다. 이것을 위정자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나라도 게으른 자들이 통치하면 국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둘째, 인생에서 재정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전 10:19)를 냉소적으로 읽을 수도 있겠으나, 돈이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식적인 선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녀가 등록금이 필요할 경우, 차가 고장나서 고쳐야 할 경우, 갑자기 병원에 가야할 경우, 또한 본문에서처럼 즐거움을 위해서도 돈은 필요하다. 이것은 탐욕이나 물질주의가 아닌 기본 상식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게 흥청망청 쓰면 경제가 엉망이 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어찌되었건 실용적인 면에서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도 강조한다.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을 걱정하는데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눅 12:30)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돈, 돈’하면서 살지 말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신다.

셋째, 권세 잡은 이들에 대해 조심하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돈, 돈’하면서 살지 말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신다.

것임이니라”(전 10:20). 이것은 통치자들과 부유층을 조심하라는 충고다. 그들은 권력과 세도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나의 인권을 쥐고 있는 상사를 조심해야 한다. 고객도 앞잡아 보다가는 후회할 날이 닥칠 수 있다. 이들은 우리의 재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들이다.

넷째, 당신의 투자처를 다양화하라.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전 11:1-2).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자선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언급이다. 이 경우에 ‘물’은 해상 무역에서 하는 모험적 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일곱 혹은 여덟에게 나눠 주라’는 것은 투자처를 다양하게 하라는 의미다. 어떤 재앙이 땅에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달 같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은 현대적인 말로 분산 투자 방식과 비슷하다.

다섯째, 투자할 때 너무 소심하게 처신하지 말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과중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전 11:3-4). 때론 우리가 아무리 잘 해도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결국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재난이나 악재를 피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나고 어떤 일은 쓰러진 나무처럼 예측할 수 없거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미리 통제할 수 없다.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재난을 당해 슬픔 속에 고개를 떨구게 될지, 아니면 그러저럭 잘해나갈 수 있을지 우리는 모른다.

그렇다고 폭풍우가 두려워 밭에 과종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 그런 자는 결국 수확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재물을 모을 수 없다. 일이 잘못될 것을 너무 두려워해 아무것도 안 하거나 계속 미루는 것은 지혜롭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덜 덜 떨면서 세상에 도전하지 못하고 방안에 처박혀 있을 것이 아니라, 돈을 투자해 합리적인 위험을 감수할 용기를 가지라는 말이다.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잘못될지라도 성공과 실패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섯째,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라. “바람의 길어떠함과 아이 밴 자의 태에서 빠져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전 11:5). 인간이 가장 겸손해지는 순간 중



하나가 임신부가 아이를 뱃속에서 아이를 낳을 때와 아이를 낳을 때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나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심할 수밖에 없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성공을 보장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나 목적을 갖고 계신지 알지 못한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롭다. 그분의 의도를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믿음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모험도 해 볼 필요가 있다. **믿음의 벤치가 필요하다.**

일곱째, 끈질기게 노력하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될는지, 저것이 잘될는지, 혹 둘이 다 잘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전 11:6). 이 말은 쉬지 말고 일 중독자처럼 일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업은 항상 불확실성이 따르므로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준비하라는 것이다. 다양하게 씨를 뿌려 놓았다면 그 중 어느 하나가 잘될 수도 있고 둘 다 잘될 수도 있으므로 기다려 보아야 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아무 행동도 안 하거나, 수동적으로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노력과 투자를 다양화하고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 잠깐 노력해 보다가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라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포기란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

돈, 사업, 투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다. 그러나 투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일곱째의 ‘끈질기게 노력하라’는 삶을 사는 데에도 중요한 원리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부지런히 일해 모든 일에 성공하기를 바라신다. 그러기에 지혜문학서를 통해 지혜를 가르쳐주신 것이다. 적용은 우리 몫이다.

- 위의 글을 읽고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다면 나누어 보자.

- 위의 일곱 가지 투자 원칙 중에서 현재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FWIA Voice

요약정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부터 물질세계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 많은 긍정적인 면을 가르쳐 줍니다.



지혜문학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업의 원리, 투자의 원리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벤처정신이 필요합니다.

i 리차드포스터. 「돈 섹스 권력」 김영호 옮김(도서출판 두란노, 2011),31.

ii 이 부분은 TOW에서 많은 부분을 발췌했다: "Ecclesiastes and work". <https://www.theologyofwork.org/old-testament/ecclesiastes>.